

# 사 설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간 거진항에서는 고성군수협과 거진어촌계 주최로 '고성지역 어업인 화합의 장(풍어제) 행사'가 열렸다. 행사가 열리기 전부터 거진읍 시가지에는 풍어제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플래카드가 수십여 개나 내걸려 주민들이 풍어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 알 수 있었다.

풍어제는 지역 어업인들이 선조 때부터 전통을 이어온 어촌지역 특유의 신앙문화로, 해난사고로 목숨을 잃은 어업인들의 넋을 달래고 어로 활동의 무사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행사다. 지금은 의미가 많이 축소되었지만, 아직도 어업이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고성에서는 상당히 비중 있는 행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풍어제에서는 동해안 별신굿 기능보유자인 김영희씨를 비롯한 무속인 13명이 '서낭굿' 등 다양한 굿을 선보였다. 또 야외 어구어업 전시관 운영, 어망 뜨기와 전통 그물짜기 재현, 나잠어업과

바다낚시 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해 볼거리를 제공했다.

그런데 27일 오전 11시에 개최된 풍어제 개막식장에는 국회의원과 군수, 군의회 의장 등 지역을 대표하는 선출직 정치인 3명이 모두 참석하지 않아 어업인들에게 큰 실망감과 상처를 안겨줬다. 고성지역의 선출직 정치인 가운데는 황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어업인들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어촌과 어업인들을 살리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어업인들을 무시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거진항에서 만난 한 어민은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 3명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어업인들을 그만큼 중요하게

참석하지 않았다는 게 알려지자 "다음 선거에 나갈 것 같으면 오지 않았겠느냐"며 성토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 3명의 정치인 가운데 그나마 불참 이유가 확실한 사람은 영월에서 개최된 의장협의회 참석차 출장을 간 문명호 의장뿐이다. 송훈석 의원은 개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황종국 군수는 개막식이 있던 시각에 다른 일이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가 오후 3시경 별도로 행사장에 다녀왔다고 한다.

어업인들은 개막식에서 생긴 섭섭함과 억울함마저 참아내고 곳은 날씨 속에서도 3박4일간 모처럼 한데 어울려 화합의 장을 연출했다. 고성지역의 경기 침체 이유는 금강산 육로관광 중단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어촌경제의 피해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다. 어업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어업인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정치가 아쉽다.

## 풍어제에서 만난 어느 어민의 눈물

상연·함형완·홍봉선 군의원 등 단 3명밖에 참석하지 않았다.

반면 이날 개막식에는 김정길 전 장관과 황학수 전 국회의원, 황창주 전 국회의원, 김홍주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장 등 지역과 직접 연관이 없는 비중있는 외부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행사에 힘을 실어줬다. 축사나 격려사도 모두 외부 인사들의 몫이 되고 말았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오늘처럼 어민이라는 게 슬펐던 적은 없었다. 눈물이 난다"고 했다.

또 다른 어민은 "초상이 나도 일일이 찾아다니는 정치인들이 지역 어업인들의 최대 행사인 풍어제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어민들을 뭇로 생각하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특히 황종국 군수가 지역에 있었으면서도

때를 가리지 않고 엄습한 예측할 수 없는 오늘의 이상기후에 건강관리 내지 위험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일기예보·비상특보에 신속히 대응하고 더불어 미리준비 주의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하나, 불쾌지수를 대비하여야한다. THI는 온도 습도관계로 인체에 느껴지는 쾌·불쾌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0.72(건구온도+습구온도)+40.6으로 계산하여 70 이상은 약간불쾌, 75이상이면 반수불쾌, 80이상이면 모든 사람은 불쾌함을 느끼는데 피하거나 물아내거나 미리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함에는 산 내 호수 바다를 찾거나 집안에서 피서의 방법으로 취하는 것이다.

둘, 피부염에 유의한다. 폭염 뜨거움 등 외계로부터 자극에 의한 피부의 염증 동물이나 식물의 독 약품 따위에 의한 반응 방식선 태양 광선이나 열 한 냉에 의한 염습을 대비하여 위험을 피하여 방지한다는 것이다. 외출을 삼가 하거나 양산 모자 마스크 선글라스 준비하거나 착용한다는 것이다.

셋, 엄습한 자외선에 대비한다. 스펙트럼이 가시광선이 보랏빛 보다 단파장 쪽에 있는 광선 그 파장은 x선보다 짙어 4000~3800부터 Angstrom (옹스트롬: 빛의 파장측정단위 1밀리미터의 1/1000만) 정도까지에 이르는 전자기파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태양광선 중에 포함

## 금강칼럼

김 종 식  
객원논설위원



## 계절 따라 찾아든 불청객을 알아본다

되어 살균내지 체내의 비타민 D생성 등 생리적 화학적 작용을 한다. 수온에서도 발생한다는 것. 구름 흐린 날씨에도 80%가 구름 뚫고 피부에 닿는 것이다. 30분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선글라스를 착용 외출 준비 휴대품을 갖추고 어제의 지혜로 오늘의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

넷, 뇌졸중에 주의한다. 뇌의 급격한 혈행장애로 일어나는 증상 갑자기 의식을 잃고 넘어지며 수족운동마비를 일으키는 것. 腦溢血(일혈; 뇌 혈액이 넘침), 뇌 栓塞(뇌 전색; 뇌혈관이 막힘), 뇌血栓(혈전; 뇌혈관 잘 흐르지 못함),중풍 등 뇌에 장애가 일어나 半身不隨(반신불수)가 된다는 것. 마음은 있어도 하지 못한 것이다. 즉 마음은 하려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못한다. 코로 숨쉬면 일산화질소로 인하여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순환을 원활하여 뇌졸중을 다스린다는 것이다. 이 일산화질소는 바에선 탄산 가스로 산화된다는 것이 개발되어 실

용화에 이르렀다는 것은 뇌혈관 질환자는 물론 모든 이에게 기쁜 소식이다.

다섯, 식중독에 유의한다. 음식물에 유독물질의 섭취로 생기는 급성소화기 질환 전신부조 설사 복통 구토 증상 모든 피부에 발진 원인 음식물 부패에 기인되고 과식이나 익지 않는 과일 즉 식품중독 식이 중독 등은 병중구입이라 모든 병은 입을 통해서 들어온다 하였다.

여섯, 자연재해를 극복하자 火山爆發(화산폭발-화산재 지진-대비 태풍 폭풍 해일 노을 지나면 폭풍우 소나기로 홍수 산사태 자연현상의 이상 원인으로 일어나는 천재 기타 위험수위가 높다는 것이다.

일곱, 재앙조짐엔 자제 자숙 지혜의 기지로 최소화 또는 Zero화할 수 있다. 사람에게 기인하여 뜻밖의 사건 이른바 재화로 인명·재산 피해는 방사능오염 매연 유기물질 유기물은 육지 해상 항공 우주쓰레기 산화 온실가스 배출 기타 각종 쓰레기 등

에 생명체는 생사 위험갈림길에 있다는 것. '녹색혁신운동'으로 인재 Zero화는 인류를 위한 삶의 지혜를 모으자. 금년에도 16명 희생 실종사망 재산상 손해 매년 연례행사처럼 자연재해를 입고 있다. 이를 최소화 내지 제로로 하는 마음·실천 그리고 행동뿐이다. 안전은 따로 없고 주의하는 일만이 사고의 예방이요 안전의 길이다.

건강365. 오늘 대신의 비밀을 생각한다.

39)아메비성 이질엔 매일 식사 할 때마다 1일3회 생마늘 5~7쪽을 복용하면 효능이 있고 결핵환자엔 살균의 효험이 있다.

40)喉腫痛(후종통: 목구멍 붓고 아픔)엔 큰 마늘 한 개를 찢어 오른손 陽谿穴(양계혈; 한의사에게 문의바람)에 바르면 불집이 생기는데 이를 짜버리면 곧 낫고 또한 白喉危症(백후 위증)에도 효험이 있다.

41)小兒百日咳(소아 백일해)엔 껌질 벗긴 마늘600g을 잘 찢어서 물6배의 물에 10시간 담근 후 즙을 낸 후 이것을 작은 숟가락으로 하반씩 2 시간마다 나올 때까지 계속 복용한다. 설렁을 약간 넣어도 좋다. 42)감기엔 큰 마늘 3개 생가 5조각 큰 파 흰 뿌리 한 치 길이 5개에 후추 약간 넣어 물 2사발을 1/3로 달여 한 번에 다 마신다.1일 3회복하면 되는데 중환자는 땀을 내야한다.

### ◇편집국에서

0...2011년 고성 왕곡마을 전통민속체험 축제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열린다. 지금은 옛모습을 많이 상실했지만, 아직까지 19세기 민가와 북방식 전통가옥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중요민속자료 제235호로 지정됐다.

우리 고장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인 왕곡마을도 시대의 흐름 속에서 원주민들이 하나 둘씩 떠나 전통을 잇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도 생활불편을 감수하며 전통의 맥을 잇고 있는 왕곡마을 주민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강원 고성신문 •등록번호: 강원 다 01183 •등록일: 2011년 1월20일 •간별: 주간

•우 219-803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최낙관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